

바른미래·평화, 대안신당 빼고 '개문발차'...3당 통합 배격

박주현 "임시 지도부 때문에 결렬 안돼"...합당 절차 추진 당헌·당명·정강정책 개정...대안신당은 "지도부 바꿔야"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13일 두차례 통합 협상에 나섰지만 손학규·정동영 대표의 퇴진 문제를 놓고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3당은 14일 오전 다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대안신당을 제외하고 우선 '개문발차' 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서는 반면 대안신당에서는 손 대표로는 통합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령개혁위원장 등과 진행한 3당 통합 실무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대안신당은 손 대표가 선(先)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통합 노력을 계속하고 개문발차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은 회동에 불참하고 황인철 사무부총장이 참석했다.

박주현 위원장은 손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청년·미래세대를 포함한 '2단계 통합'

시점인 오는 28일까지 현재 대표들로 공동 지도부체제를 구성하는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에 대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안신당이 이를 거부한 것을 놓고서는 "(차기 지도부 선출까지) 일주일 임시 지도부를 세우는 것 때문에 통합이 결렬될 일인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통합 시한으로 제시했던 17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하지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20~21일까지 갈 수도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펼쳐야 할지에 대해서도 박주선 위원장과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개혁위원장은 "(손 대표가) 그간 조건부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적이 있어 이번에는 통합 후 당헌 등에 별도조항으로 손 대표의 2월말 퇴진을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이같이 우선 양당 통합을 서두르고 나선 것은 4·15 총선이 두 달 앞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대안신당을 압박, 통합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대안신당 측에서는 손학규·정동영 대표의 퇴진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당의 지도부가 뒤로 물러나는 현실적인 모습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손학규·정동영 대표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이 통합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 등 지분 나누기에 나서지 않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내세우는 미래세대와 정 대표가 내세우는 중소 상공인 진영도 정치적 실체가 과장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총선을 치르고 정치적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분열보다는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14일 협상에서 어느정도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구원 토론회에서 '박주선 의원이 2월 말까지 사퇴한다고 했는데 맞나'라는 질문은 "2월 말까지 통합을 마치면 (대표에서) 그만둔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또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통합을 선언한 순간 지도부 교체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이미 내려놓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것"이라며 "대의를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최고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을 향해 "기존의 당명, 지도부, 당 시

스템도 다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11일 합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다 함께 통 큰 결단을 하자"고 촉구했다.

같은날 박지연 의원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손학규, 최경

환, 정동영을 공동대표로 하면 국민이 감동하겠다, 호남에서 미동하겠다"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미래세대와 손 대표가 통합하라"고 지적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영입인재 '저격 공천' 안한다...전략지 정리후 지역구 배치

전략지역 5~6곳 추가 지정 김홍걸 비례대표 출마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영입인재들의 출마 지역구 배치를 전략지역 등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영입인재들은 추가 공모와 관계가 없다"며 "추가공모 때 영입인재들이 이미 후보가 있는 지역구를 적어 신청하게 되면 당이 '저격공천'을 하는

모양새가 되기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입인재들의 지역구 배치는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 등 전략지역 결정과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어서 최소 1~2주일은 더 있어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병철 전 고검장은 고항인 순천,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경남 양산 갑,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경기 고양 등 수도권 지역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당은 공식적으로는 영입인재 중 지역구가 확정된 사람은 없다는 입

장이다.

민주당은 현역 불출마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발표한 전략지역 15곳에 더해 다음주 추가 전략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경남 양산에 출마하게 된 김두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김포갑 등 5~6곳이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지역과 함께 '하위 20%' 현역의원의 자발적 용퇴 가능성이 있는 지역,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 등이 모두 정리되면 영입인재들을 배치하겠다는 게 당의 기본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후보들이 있는 일부 전략지역의 경우에는 경선을 치르는 것도 고려 중이다. 또 민주당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등도 영입인재와 마찬가지로 전략지역 등이 모두 정리된 후에 지역구를 확정하겠다는 생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비례대표 출마로 가닥이 잡혔다.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김 의장이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자체장 내일부터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당의 정강·정책, 홍보·선전 행위도 금지

체육대회·경로행사도 못열어

4·15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여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 대책기구를 방문하면 안 된다.

13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 정당의 선거 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방문도 할 수 없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일도 불가하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

는 행위 ▲특정인·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소입니다" 등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해선 안 된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금지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의 의뢰를 받거나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중앙 부처 및 지자체에 "공무원의 선거 관련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하며 소속 공무원과 산하 기관 대상 관련 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임종석, 출마도 선대위원장도 고사...이광재는 출마 여부 고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4·15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요청을 사실상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임 전 실장이 이미 확고하게 불출마 뜻을 밝혔고 검찰 수사상선에도 올라 있기에 '여러 점을 고려하면 선대위 참여와 출마 모두 기존 입장

을 반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도부가 양해해달라"고 정중히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임 전 실장이 당원으로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도와야 한다는 데는 임 전 실장 본인도 지도부 모두 이견이 없어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직접 선대위원장 합류와 강원 지역 출마를 요청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여전히 숙고 중이지만, 당의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양정철 민주당 구원장과 윤호중 사무총장, 김성한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통해 이 전 지사에게 당의 요청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사는 강원 선대위원장 참여는 수락했

으나 출마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결심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진정세를 보며 선대위 출범 시기를 조율 중이다. 당장은 방역 등 사태 대응이 선거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후 선대위를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